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일시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오전 07:00~09:30

장소

서울 신라호텔 2F Dynasty Hall

발표

1. 인구오너스 시대의 대한민국 - 신승이 **SBS** 기자
2. 눈앞에 닥친 '목말'사회 -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3.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4. 가족의 재발견 - 생활공공성의 회복 -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5. 인구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 - **SBS**

강평

정진엽 - 보건복지부장관

나경원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한국리포트는 SBS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 세 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뤘습니다.
아직 사안의 중대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인 2004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재창조’를 통한 활로를 모색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등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다뤄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과 성숙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조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공성의 부재’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고,
경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사회의 재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정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미래한국리포트

- 제13차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사회로
- 제12차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 성장사회
- 제11차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 제10차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 제 9차 경쟁의 딜레마
- 제 8차 2010 대한민국 ‘소통’
- 제 7차 위기를 넘어서
- 제 6차 기후의 역습
- 제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 제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 제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 제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 제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목차|CONTENTS

1	개요 및 일정	01
2	개회사 - 김진원 SBS 대표이사 사장	04
3	축사 - 황교안 국무총리	06
4	PRESENTATION 1 인구오너스 시대의 대한민국 - 신승이 SBS 기자	10
5	PRESENTATION 2 눈앞에 닥친 ‘목말’사회 -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46
6	PRESENTATION 3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76
7	PRESENTATION 4 가족의 재발견 - 생활공공성의 회복 -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108
8	PRESENTATION 5 인구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 - SBS	138
9	강평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42



“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SBS 대표이사 사장 **김진원**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극적인 인구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특히 그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700만 명을 기록한 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급격한 인구 변동은 경제 성장 지체와 노동력 부족, 재정 위기, 지방 소멸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 삶의 질, 사회적 활력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롤러코스터가 레일 정상에 올라 급강하하기 직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추락을 앞두고도 지금은 안정적 상태라고 착각해 다가올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변동에 대처할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에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인구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 아일랜드, 대만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新인구론-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미래한국리포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BS는 그동안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열세 차례의 미래한국리포트는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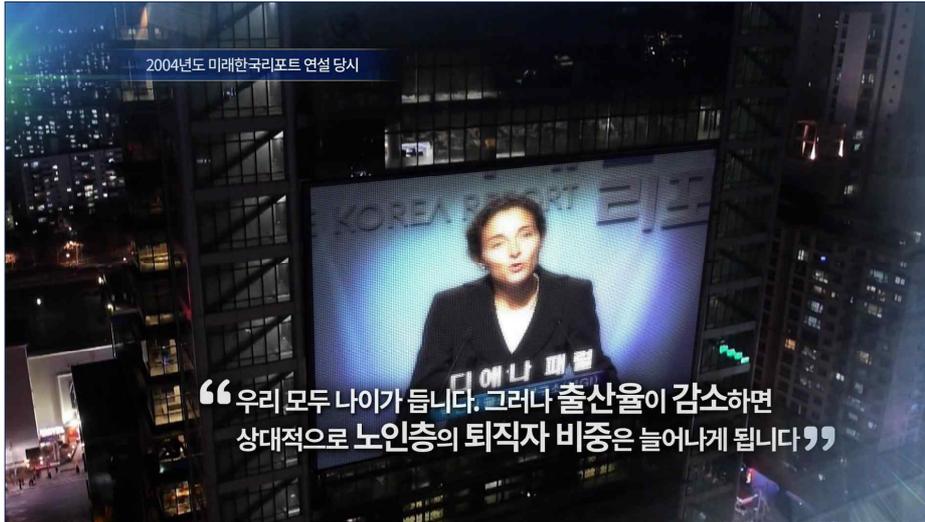
대한민국 新인구론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회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또 김진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후년이면 이른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도 올해 3,700만 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부담을 가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보육서비스 등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SBS가 인구문제를 올해 미래한국리포트의 주제로 삼은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 일본, 아일랜드, 대만 등 인구정책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제언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내용은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에 훌륭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미래한국리포트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SBS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미래에 닥칠 위기들을 한발 앞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2004년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전에 그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중진국으로서의 사실상 처음으로 겪는 저출산 고령화의 실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SBS는 보육시설과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없이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연금과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화 산업과 관련 금융을 키울 것을 제언했습니다.



올해 미래한국리포트는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다시 짚어봅니다.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인구 전환기를 맞고 있는 다섯 나라, 한국과 독일, 일본, 아일랜드, 대만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 '대한민국 新인구론 -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라는 주제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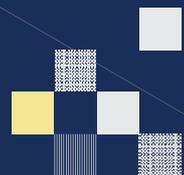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인구오너스 시대의 대한민국

신승이 SBS 기자





안녕하십니까.
SBS 신승이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보너스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인구보너스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연령층 인구비율이 높아 소비와 생산이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구조입니다.
이는 인구 변화가 일종의 덤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보너스를 끝내고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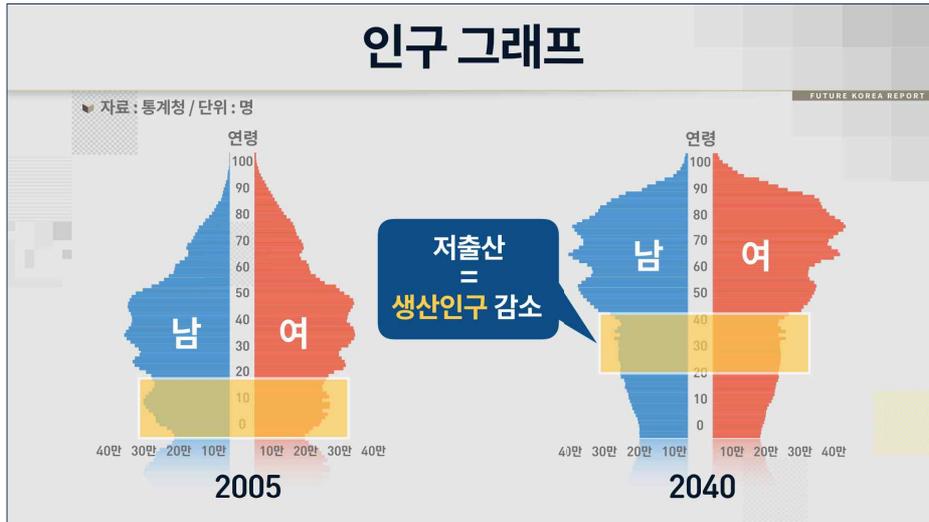
인구오너스에서 오너스는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성장의 엔진은 식어 가는데
고령층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가벼운 몸으로 트랙을 뛰는 선수가 인구보너스 시대의 모습이라면,
무거운 배낭에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달리는 것은
인구오너스 시대, 우리의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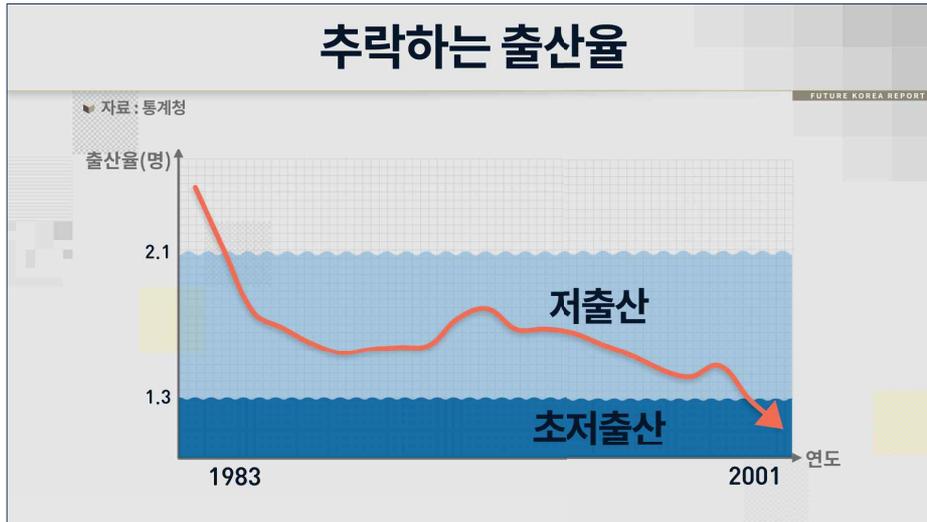
인구보너스와 인구오너스는 정 반대의 현상이지만
그 뿌리는 모두 '저출산'에 있습니다.

인구 그래프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이 지금까지 부양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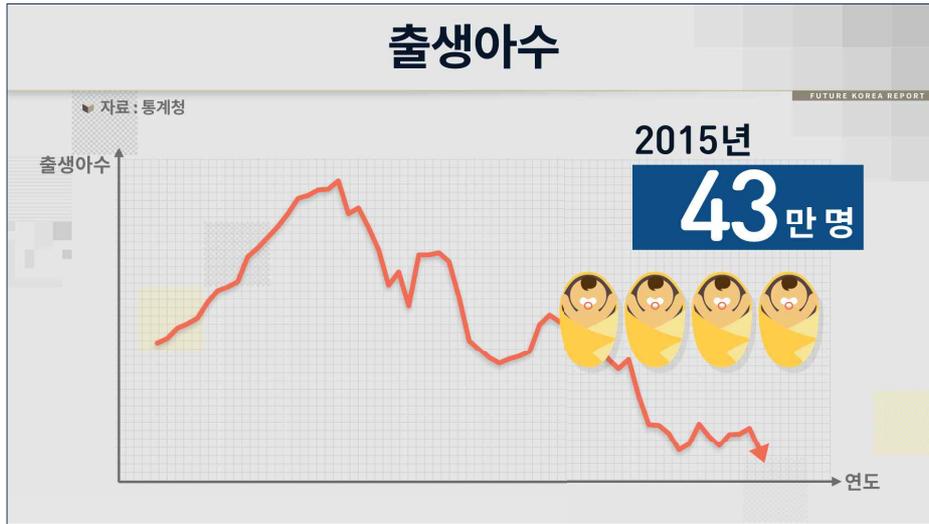
추락하는 출산율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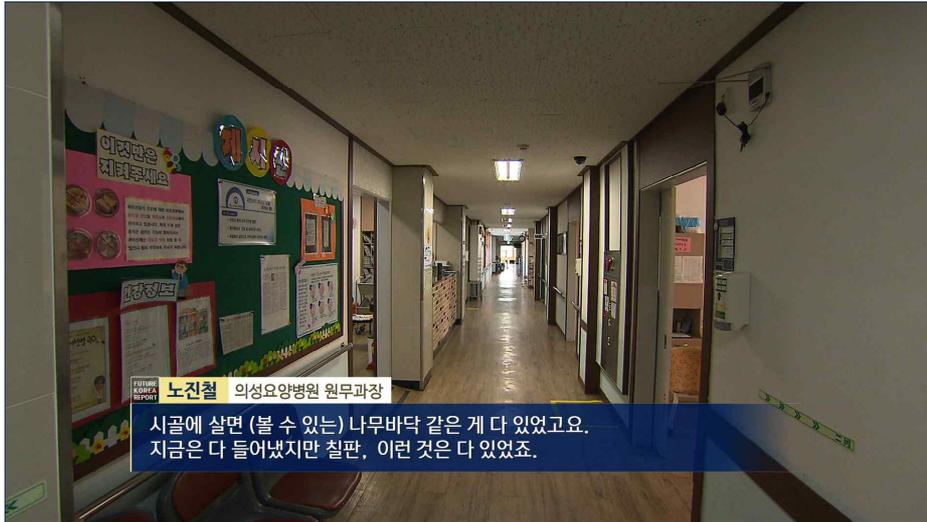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의 저출산 국가가 된지도 이미 33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부터는 1.3명 선이 깨지면서 초저출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출생아수



한 때 매년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나던 신생아 수는 이제 43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생아수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43만 명 선 턱걸이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 의성군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진철 의성요양병원 원무과장

시골에 살면 (볼 수 있는) 나무바닥 같은 게 다 있었고요.
 지금은 다 들어냈지만 칠판, 이런 것은 다 있었죠.

Report

경북 의성군의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지난 2008년 병원이 들어서기 전 이 곳은 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된 뒤 노인 의료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진철 / 의성요양병원 원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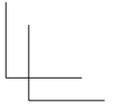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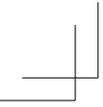
“시골에 살면 (볼 수 있는) 나무 바닥 같은 게 다 있었고요,
 지금은 다 들어냈지만 칠판 이런 것은 다 있었죠.”

의성군의 한 마을에는 19년 만에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농한 가정에 쌍둥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유선하 / 의성군 다인면

“보물단지야, 보물단지. 보행기 태워 나가거나 업고 나가면
 전부 다 부르고 손 흔들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 걸.”

인근 40여개 마을을 다 합쳐도 또래 아기는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큼니다.
소비여력이 줄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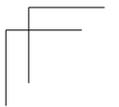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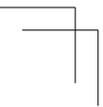
강대기 / 염매시장 상인회장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젊은 인구가) 감소 추세로 가는 거예요.
소득이 안 나오니, (장사를) 접고 또 접고...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추세지.”

혼자 사는 노인 주민이 많아지다 보니
이들이 떠나고 난 뒤 방치된 빈집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이 마을은 5가구 중 한 가구꼴로 버려진 집입니다.

채정구 / 의성군 안평면 이장

“동네로 봐서는 안 좋은 게 외관상 보기가 싫지.
외관상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지금 80~90대 분들 돌아가시면, 앞으로 빈집 더 많아질 거예요.”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38%에 이릅니다.
읍내를 벗어나면 고령층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권오현 / 의성군 안평면

“그렇죠. 막내이지요. 집에서는 어른인데 노인 회관에 오면 막내예요.”

노인복지 부담은 갈수록 늘어 가는데
지역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못 미칩니다.

전중태 / 의성군청 기획실장

“5천억 예산 중에 우리 세금 가지고는 3백억 예산 밖에 안돼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6백억 원입니다. 그러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10년 사이 의성군은 만여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6%입니다. 30년 뒤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구
226 중 **100** 곳

출생신고서

출생신고는 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는 사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자료: 통계청

대부분 지방 농어촌 마을의 현실은 의성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신고가 많았던, 그래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난 곳은
 전체 시군구 2백 스물여섯 곳 중 백 곳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는 남아 있는 사람에게도 재앙입니다.

생활사막

FUTURE KOREA REPORT



여러분 '생활사막'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병원이나 시장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주변에 없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역을 일컫습니다.

생활사막

FUTURE KORE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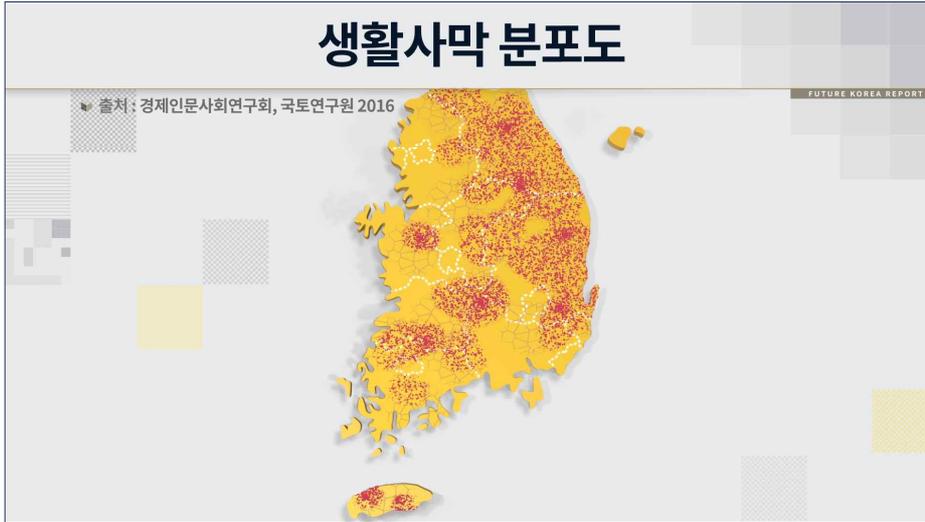
대한민국 新인구론 / 인구오너스 시대의 대한민국

우리보다 '인구오너스' 시대가 먼저 닥친 일본에서는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 간단한 생필품 하나를 구하려고
몇 시간씩 먼 길을 힘겹게 오가는 '쇼핑난민'이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생활사막 분포도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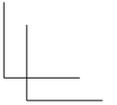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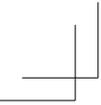
FUTURE KOREA REPORT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상점, 병원, 학교, 관공서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에
주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접근이 어려운 두 단계에 해당되는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에 걸쳐 이미 생활사막이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사막을 막기 위해서 지방 기초단체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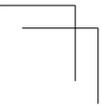


안재선(82) 임실군 월면리
 병원에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택시 불러서 타고 가야 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시간 거리인데 두 시간씩 걸리고... 또 택시가 잘 오지도 않아.

Report

전북 임실군에는 지난 4월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미니버스가 집 앞까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전까지, 이곳 주민들은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구수가 적고 외진 곳이어서 정기버스 노선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재선 / 임실군 월면리
 “병원에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택시 불러서 타고 가야 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시간 거리인데 두 시간씩 걸리고 또 택시가 잘 오지도 않아. 제일 불편한 것은 병원 다니는 것이고 또 시장 한 번 가려고 하면 참말로...”





인근 마을의 중고등학생들은 매일 택시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학교가 없어 다른 행정구역까지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서비스마저 없다면 학생들은 버스를 갈아타고 한 시간 넘게 이동해야 합니다.

유선화 / 임실군 지사면

“(예전에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버스 두 번 갈아타고 등교했어요.
거의 4~5시간 밖에 못 자서 매일 엄청 피곤했어요.”



임실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버스 노선 중 70%가 적자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이용객이 급감해 정부 지원 없이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마을 구석구석까지 추가로 버스 노선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 개인 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실 / 임실군청 교통행정팀장

“버스 노선을 설정해서 버스 운행을 하기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선을 더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인구가 더 줄고, 지방의 재정이 더 열악해지면 이렇게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해주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도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 한 때 인구가 390만 명에 육박했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 10년 사이에만 12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동구와 영도구는,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뒤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인천, 대구, 광주, 그리고 서울 일부 자치구 등 다른 대도시의 구도심도 고령층 비율이 14%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급격하게 줄어든 학생 수로 비상입니다.
일부 지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령인구의 5분의 1이 몰려 있는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볼까요.

서울 창신초등학교

FUTURE KOREA REPORT

90년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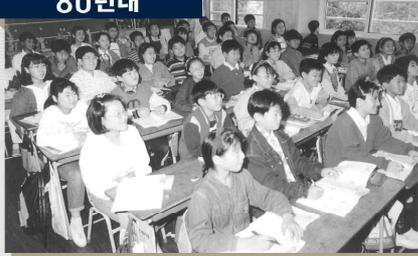


1991년도 졸업앨범에 실린 학급 사진입니다.
학생 수가 쉰 세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한 반 학생이 평균 18명입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

FUTURE KOREA REPORT

80년대



현재



1980년 5,700명이던 전교생 숫자는
올해 그 수가, 9분의 1인 6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교실의 절반이 남아돌아 놀이방,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관리 유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정이 가장 나은 곳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열 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약 1천 2백 곳이나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다섯 곳 중 한 곳 꼴입니다.
중학교도 열 곳 중 한 곳이 신입생을 10명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해,
 2023학년도에는 10만 명 이상 부족하게 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FUTURE KOREA REPORT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처음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25세부터 49세까지
핵심근로인구는 이미 2010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근로자 평균 연령

자료: 통계청

FUTURE KORE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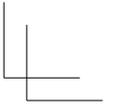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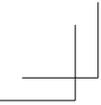
지난 2005년 37.7세이던 전체 산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은 10년 만에 3.4세 늘어 40대에 진입했습니다. 요즘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20~30대 젊은 세대를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 후 재취업한 50~60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은퇴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마저 우려됩니다.



SBS미래한국리포트는 지난 2004년 첫 번째 연구 발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가상의 인물인 '고영화씨'가 2026년 미래에서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방송된 편지 내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2004년)



2026년 고영화씨의 편지

여기 생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으로 제 월급의 40% 훨씬 넘게 손끝 하나 거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교육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바람에 대학도 여기저기 많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 들어가는 힘이 듭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부터 또 데모군요. 군인, 교사, 공무원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연금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20년쯤 뒤면 위험하다는데 제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지금 한 사람이 벌어 한 사람을 부양하는 시대라는데 체감은 더 심해요. 가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경제는... 얘기할 기분이 들지도 않네요.

여러분, 고령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주세요. 그랬다면 이런 편지는 받지 않았겠지요. 자, 힘내세요. 2004년 9월 15일.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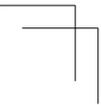
2026년 고영화씨 편지

여기 생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으로 제 월급의 40% 훨씬 넘게 손끝 하나 거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교육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바람에 대학도 여기저기 많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에는 들어가는 힘이 듭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부터 또 데모군요. 군인, 교사, 공무원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연금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20년쯤 뒤면 위험하다는데 제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지금. 한 사람이 벌어 한 사람을 부양하는 시대라는데 체감은 더 심해요. 가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경제는..., 얘기할 기분이 들지도 않네요.

여러분, 고령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주세요. 그랬다면 이런 편지는 받지 않았겠지요. 자, 힘내세요. 2004년 9월 15일.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2년 전 우울한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율은 지난 15년 동안 줄곧 초저출산국의 기준선인
1.3명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초저출산국가에 들어섰던 15개 나라 중
출산율 1.3명 선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과거보다 나빠졌습니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조사

FUTURE KORE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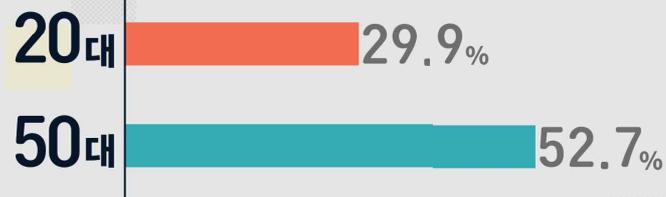
- 조사기관: 한국갤럽
- 일시: 2016년 8월 25일 ~ 29일
-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223명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 신뢰수준: 95%
- 허용오차: ± 2.8%p
- 응답률: 54.5%

SBS가 미래한국리포트를 앞두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SBS 설문조사

FUTURE KOREA REPORT

“아이를 꼭 **놓아야 한다**”



‘아이를 꼭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는 30%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응답이 50대에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SBS 설문조사

FUTURE KOREA REPORT

“결혼은 필수”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20대 역시 네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20대는 80%나 됐습니다.

SBS 설문조사

FUTURE KOREA REPORT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한 젊은이도 열 명 중 여덟 명꼴에 이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과 자녀출산을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레일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열차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차는 눈 깜짝할 사이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레일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내려오는 속도는 더 빠를 것입니다.

인구오너스 시대의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추락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사회적 부양비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인
앞으로 4~5년의 시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다음은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김진일 고려대 교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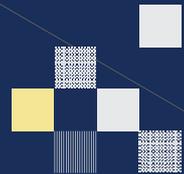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PRESENTATION

2

눈앞에 닥친 ‘목말’사회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앞의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한마디로 10년 전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해졌지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구문제에 관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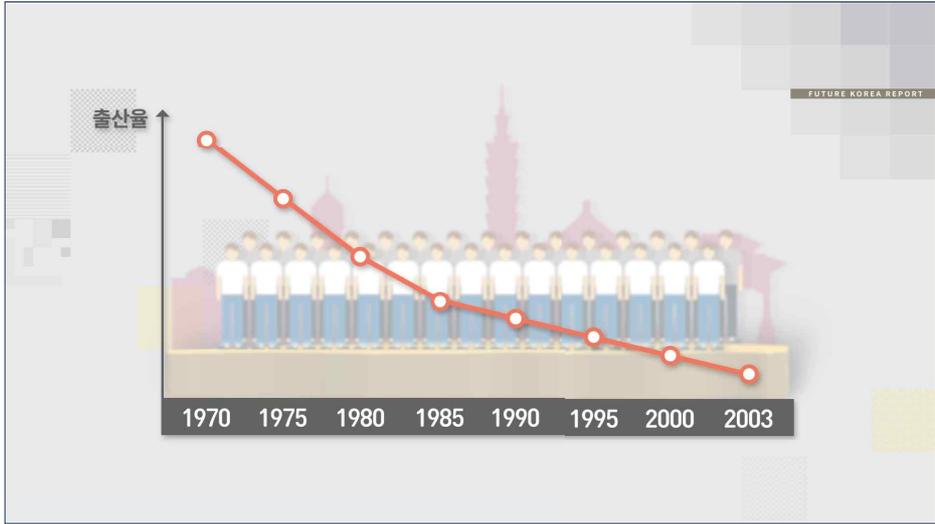


아마도 7~8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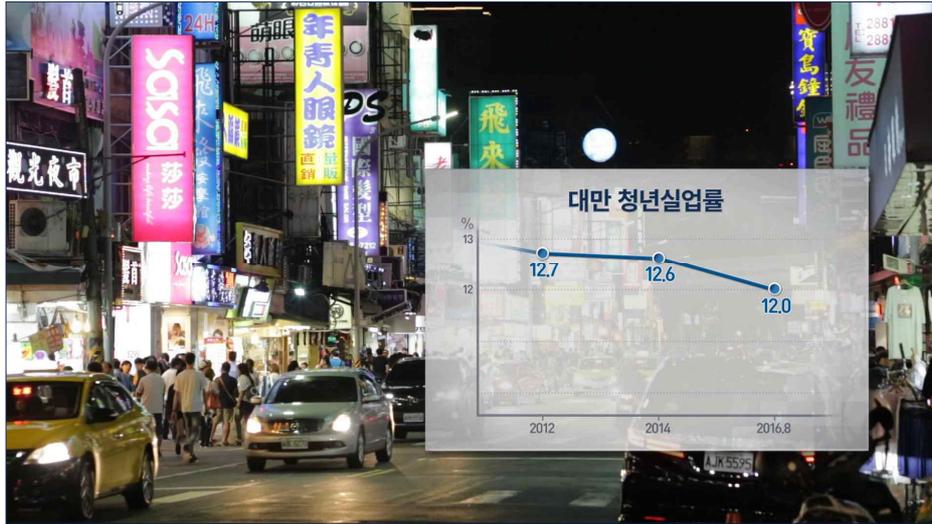
당시에는 인구가 줄면,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더 적은 국민이 나눠 갖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처럼 유년기와 청년기의 경쟁이 치열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감소는 경쟁을 완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만도
 심각한 저출산을 10여 년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현재 모습을 보시죠.



Report

대만 신베이시 외곽의 한 공장,
29살 리아웨이씨가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학 졸업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겨우 구한 직장인데,
월급은 한국 돈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리아웨이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요.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축을 1천, 2천 대만달러
(한국 돈 4~8만 원) 밖에 못하는 상황이지요.”

스물다섯 살 탕징팅씨는 지난해 초 광고회사에 취직하며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야팡’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팡은 방 외엔 화장실과 세탁실을 공동 이용하는 주거형태로,
월세가 저렴하지만 탕씨는 월급의 1/4을 방세로 부담합니다.

탕징팅

Q. “결혼 생각은 없어요?”
A. “없어요. 회사생활 하다 보니 혼자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대만 청년들은 스스로를 22K 세대라고 부릅니다.
월 평균 2만 2천 대만 달러, 한국 돈 80만원 밖에
못 받는 자신들을 자조하는 말입니다.
저임금에, 높은 주거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12%대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영구 / 취재기자

“이렇다 보니 대만을 귀신의 섬, 즉 귀도라고까지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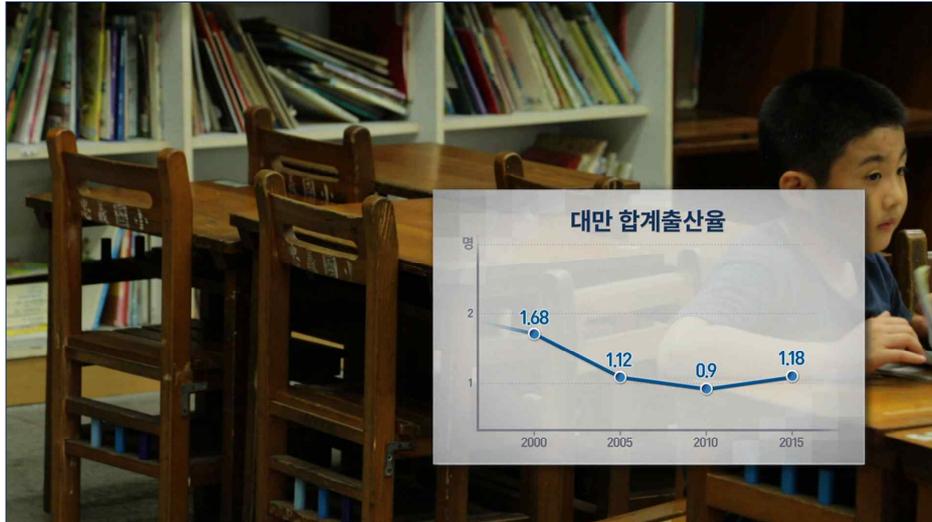
스물아홉 살 차이성요우씨는 지난 5년간 직장 5곳을 옮겨 다녔지만,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자, 아예 대만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이성요우

“해외 가서 일하면 그래도 4만 대만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만은 아무리 찾아도 2~3만 대만달러거든요.”

Q. “결혼 생각은 없어요?”

A. “제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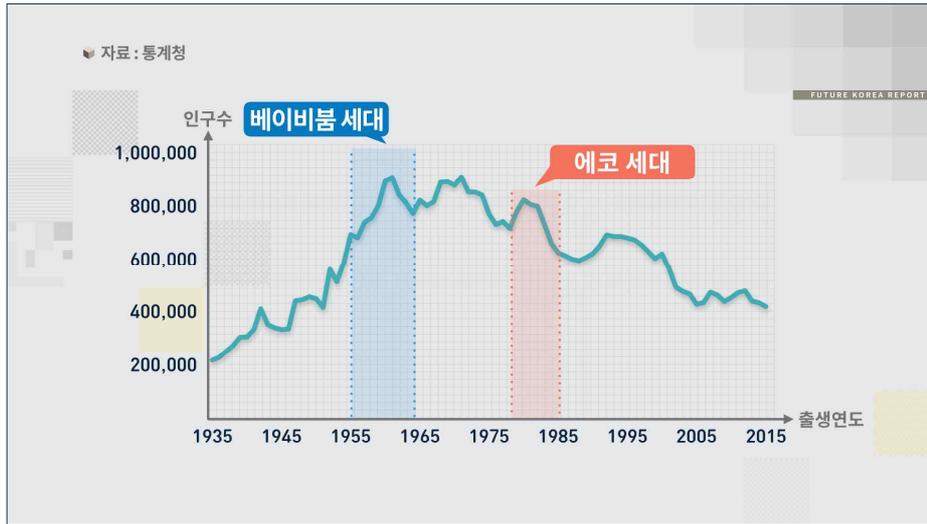
대만 출산율은 2010년 0.9명까지 떨어지는 등 십여 년째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에따화 / 대만 청년권익복지연맹 이사장

“청년들의 낮은 초봉과 양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문제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에만 초, 중학교 70곳이 학생 수 감소로 아예 문을 닫거나 인근 학교와 병합했고, 최고 명문대학들마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존폐를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일자리와 투자가 줄면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던 1인당 GDP도 이제는 5천 달러나 적어졌습니다. 더구나 2022년 인구 증가율이 ‘제로’가 되고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50년엔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부모로 둔 지금의 젊은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라는 의미에서 에코 세대로 불립니다.

해외에서는 세기말 무렵에 태어났다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외국의 한 보고서는
 “가장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냈지만
 처음으로 부모세대만큼 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 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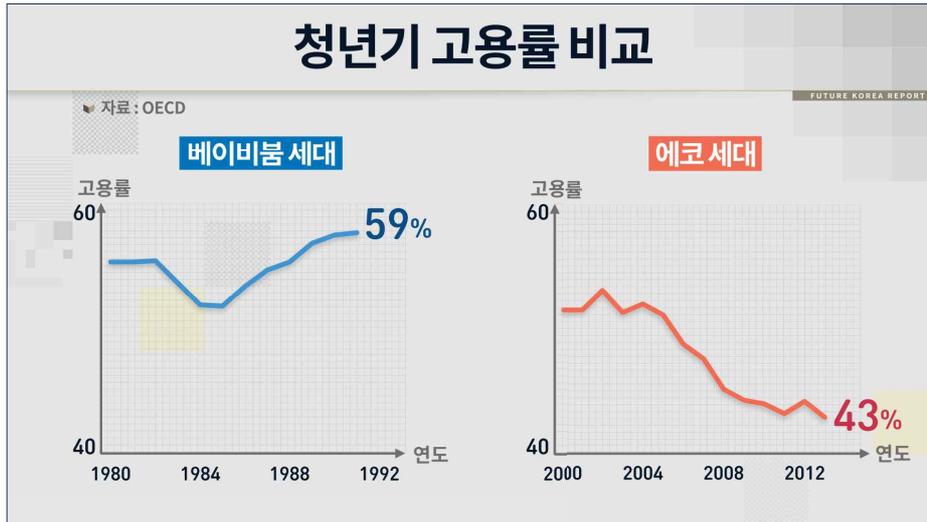
FUTURE KOREA REPORT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인구	695만 명	510만 명
성장기 GNI	1970 \$255 → 1985 \$2,355	1995 \$11,735 → 2010 \$20,562
대학 진학률	30%	70%
취업 상황	인력난	취업난

1955년에서 63년 사이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보너스를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평균 4~5명의 형제를 지닌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기까지 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2,50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1979년에서 85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 세대는 인구 보너스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평균 1~2명의 형제를 가진 에코 세대의 유년기에 우리나라의 일인당 소득은 만 달러를 넘었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청년기 고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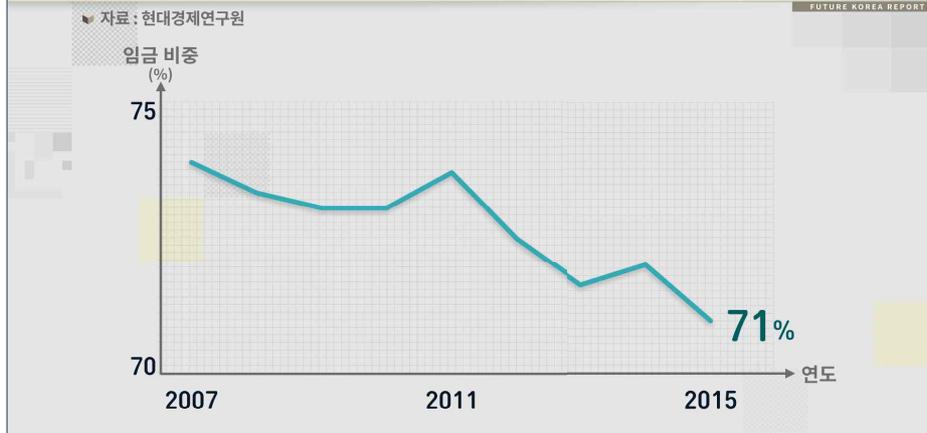


하지만 유년기를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에코 세대는 성인기에 접어들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진학률이 30% 수준이었는데 청년기 고용률은 59%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코세대는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었지만 청년기 고용률은 53%에서 43%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층 임금 / 전체 근로자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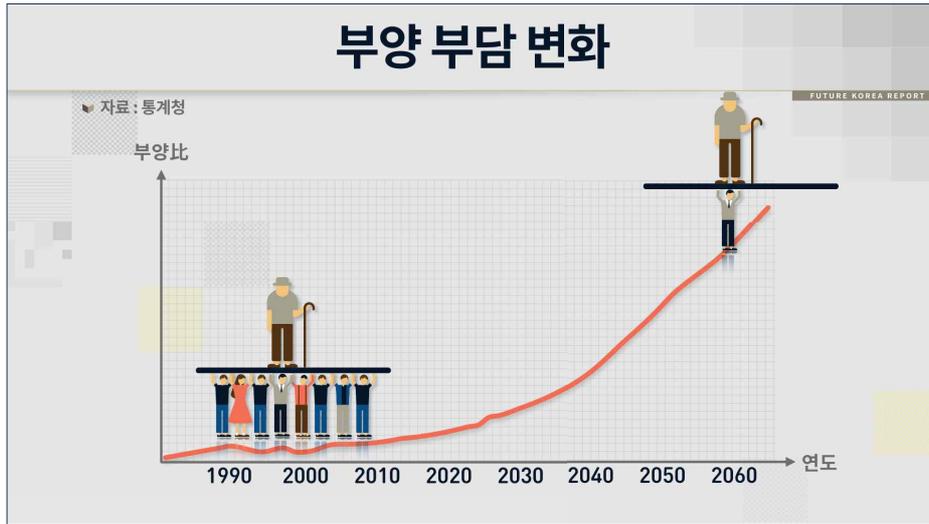
청년층의 고용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세대에 비해 더욱 격차가 큼니다. 청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6년 전체 근로자 평균의 74%에서 2015년에는 71%로 낮아졌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이후로 줄어든 반면,
청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양 부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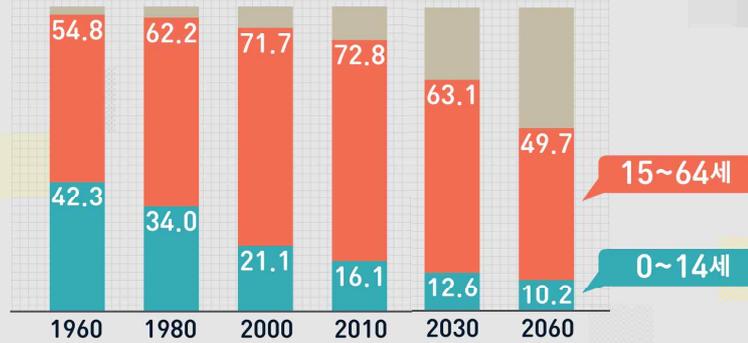
반면 젊은 세대가 젊어져야 할 부양의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일할 나이였던 1990년대에는 노인 한명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에코 세대가 한창 일할 나이인 2020년대에는 노인 한명을 3명 내지 5명이 부양하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에코 세대의 부담은 2~3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 단위: %

FUTURE KOREA REPORT



이것은 1960년부터 2060년까지
인구 구성비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래 파란 부분이 0~14세까지의 비율인데
이 부분이 1960년대 40%에서
미래에는 10%정도로 줄어듭니다.
가운데 부분이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60년대 54%에서
2010년 72.8%까지 올랐다가
2060년이 되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생산인력이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비율이 1대1이 되면서
이른바 '목말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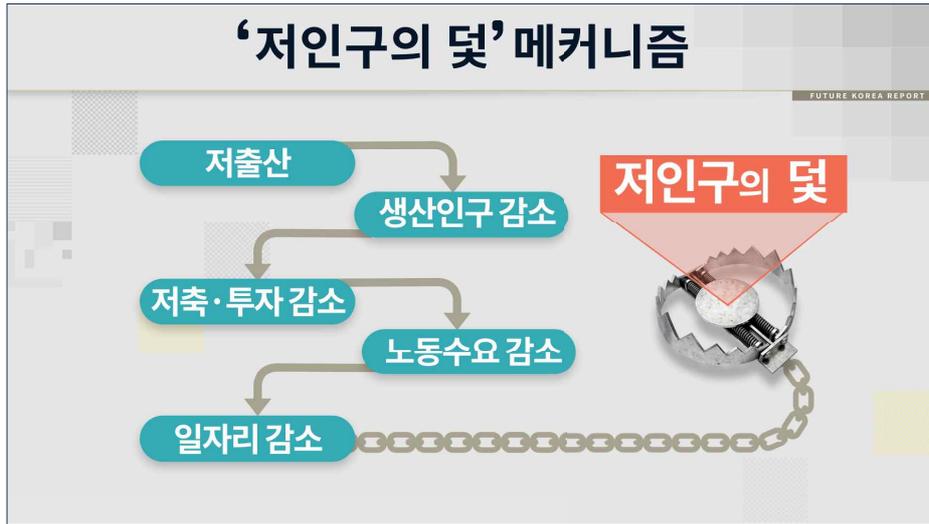
2015 UN 인구고령화 전망

FUTURE KOREA REPORT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정도가 2030년 10위에 올라서고
2050년이면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1위의 초고령국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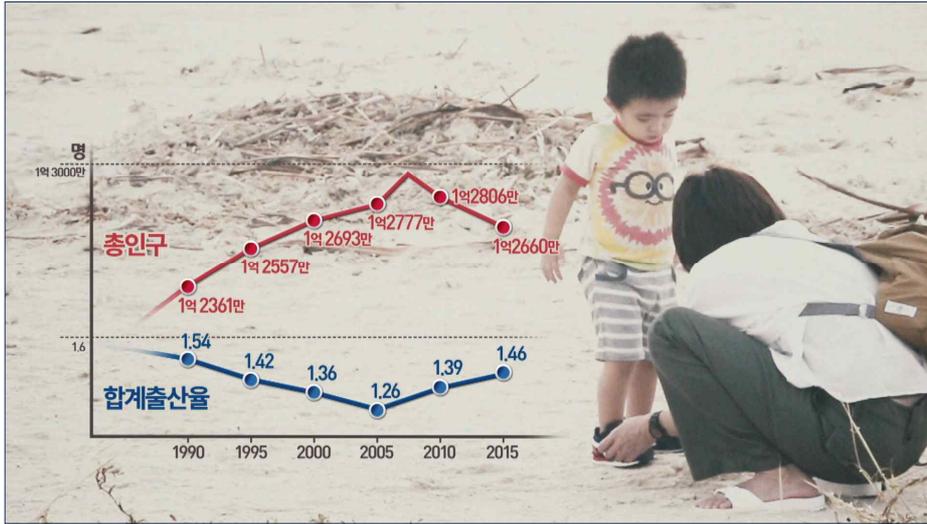
‘저인구의 덫’ 메커니즘



이와 같이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축과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인구구조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도 따라서 줄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줄면 일자리는 더 줄어 청년실업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Report

일본 도쿄 도심의 주택가입니다.
전통적인 주택 밀집지역이지만 골목 곳곳에 문이 굳게 닫히고
편지함마저 막힌 집들이 눈에 띕니다.

정형택 / 취재기자

“이렇게 버려진 집이 일본 전체로 820만 채나 됩니다.
7채 가운데 하나가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쿄와 맞닿은 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한 때 젊은이들로 붐볐던 이곳은 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

오다키 하루미 / 상인

“이 거리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장사를 하는 곳이 적을 거예요.”



이미 1974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됐고, 총인구도 200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적판매는 30% 줄었고 주유소는 45%나 급감하는 등 내수가 침체됐고,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40년에는 기초 단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소구치 코이치 / 료코대학 경제학과 교수

“도쿄 집중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인구가 자연히 감소하는 것과 사회적인 감소,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제 불황은 양극화로 이어져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오니시 렌 / 비영리법인 ‘모야이’ 대표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이고, 4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는 돈은 적은데,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들의 부담은 되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는 2005년 3.3명에서 지난해에는 2.4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0대 청년 10명 중 3명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현실 속에서복지 지출을 둘러싼 세대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아카 /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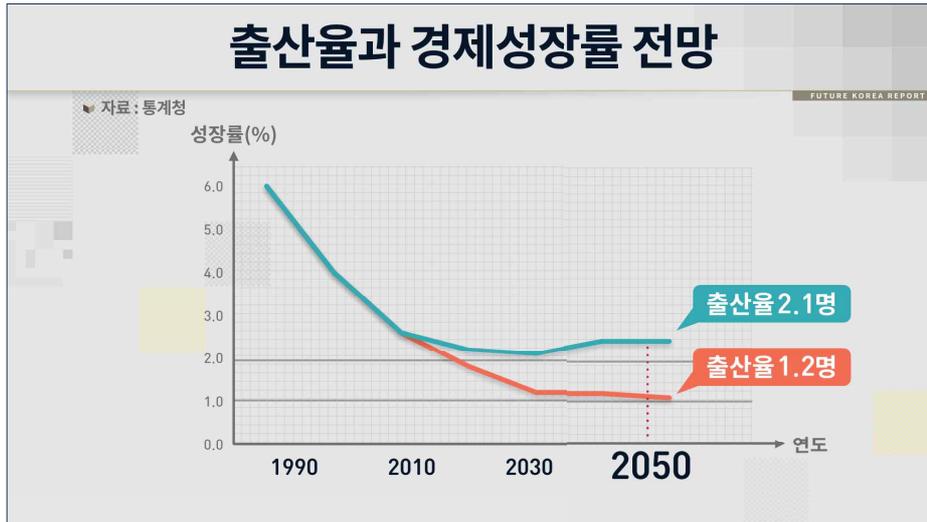
“앞으로 받을 수도 없는데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부채가 이미 GDP의 250%에 이르는 데다가 인구는 매년 0.5~1%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에 이어 사회 통합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 1.2명과 2.1명에 따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전망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출산율이 현재의 1.2명 정도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성장률은 현재 2%대에서 2050년에 1.1%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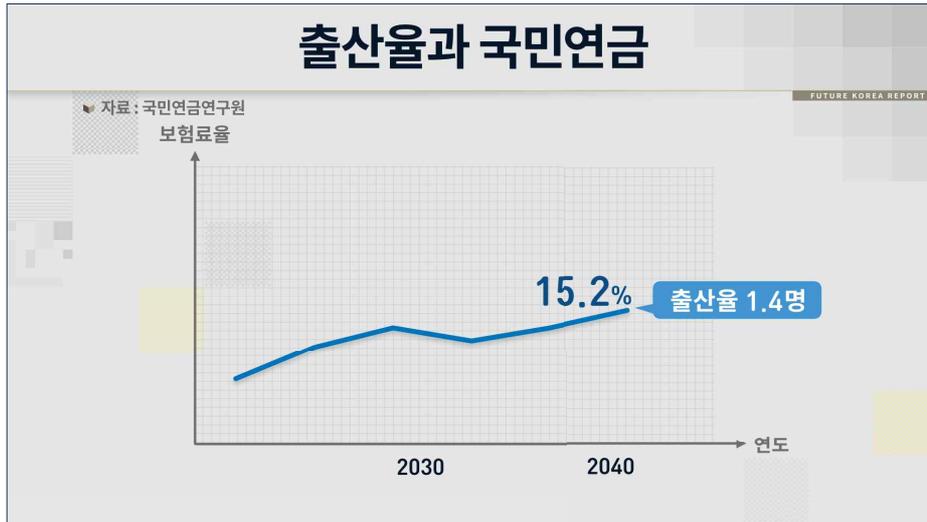
그런데 만약에 출산율이 증가해 2.1명에 도달한다면 2050년대의 성장률은 2%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출산율 1.2명 시대의 2배가 넘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누적격차



작년의 실질 국민총소득이 약 1,500조원이니
성장률 1%p 증가는 국민 소득이 15조 원정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여러 해 누적해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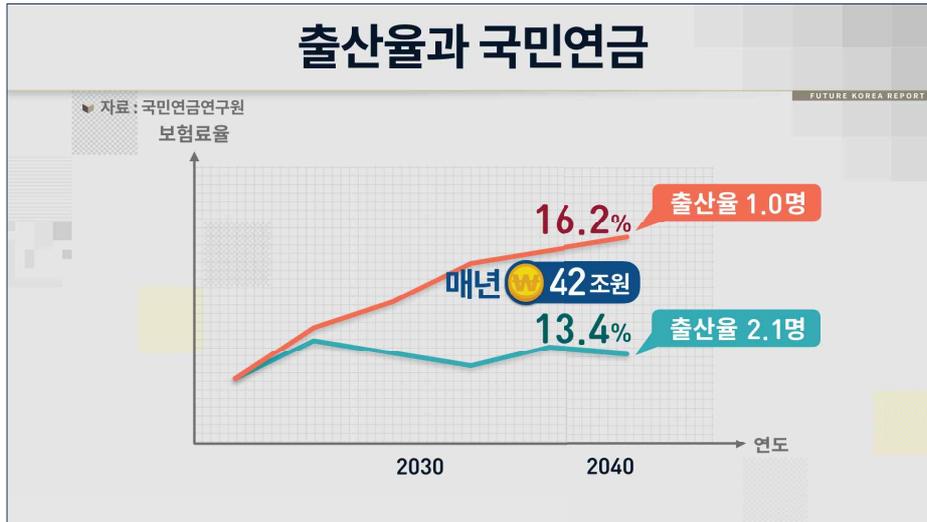
출산율과 국민연금



다음으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저출산으로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출산율이 2040년대에 1.4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5.2%가 될 것입니다.

출산율과 국민연금



그런데 저출산이 심화되어 출산율이 1.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필요보험료율이 16.2%로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2.1명의 출산율이 달성된다면, 필요보험료율은 13.4%가 됩니다.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면 출산율에 따라 매년 약 42조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계산입니다.



끝으로 저출산에 따른 주택 수요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 수요 연령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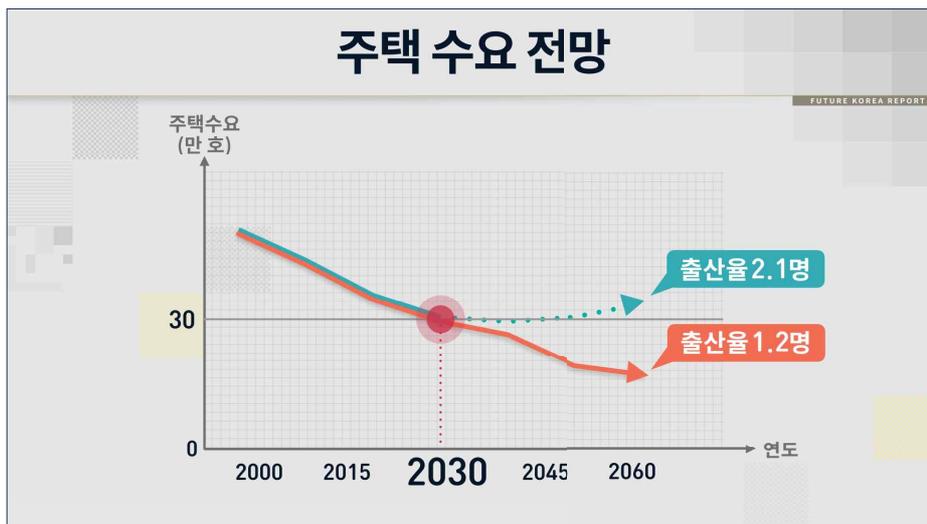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5~54세 인구

FUTURE KOREA REPORT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주택을 주로 수요하는 연령층인 35~54세 인구는 2011년 1,66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50년에 94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주택 수요 전망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 50만 가구에 달했던 주택수요는 2030년에는 30만 가구로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2.1명으로 회복된다면 2060년의 주택수요는 20% 정도 더 증가할 것입니다.



보신대로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 재정은 불안정해지고 개인의 사회 보험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조차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 태우는 ‘목말 사회’ 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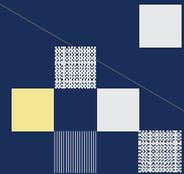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PRESENTATION
3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2000년대 들어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한 번 출산율이 떨어진 나라들은
출산율 1.5명 이상으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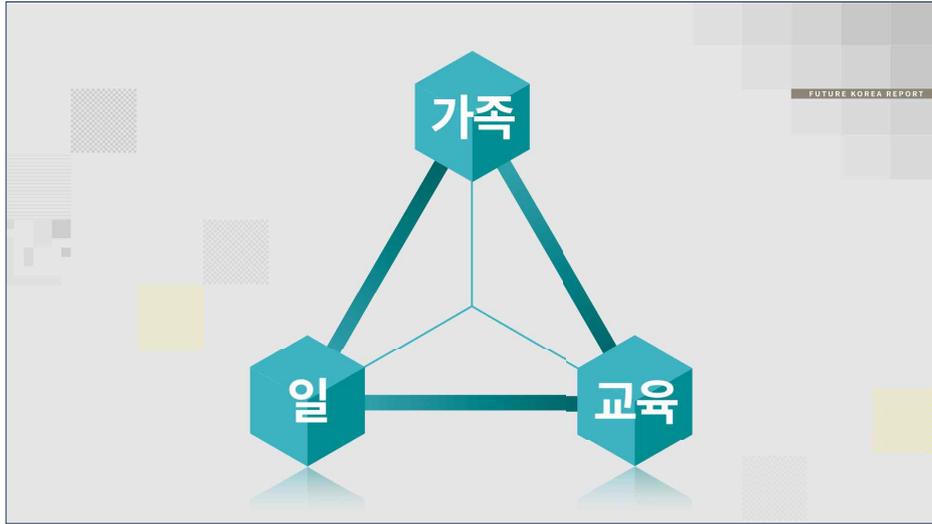


이런 상황을 인구학자들은 저출산의 덫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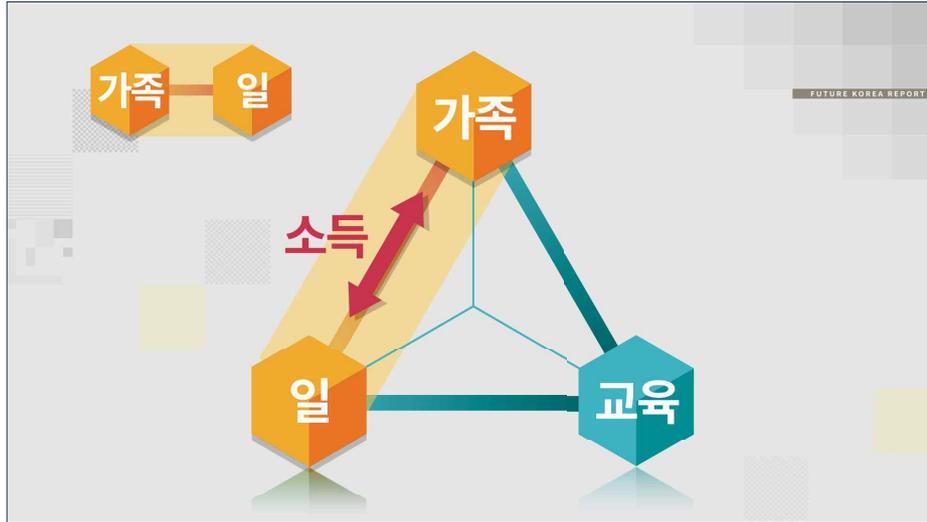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불안한 미래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생활의 경험과 규범을 바꿉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미래 삶과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경우
젊은 세대는 이 상황에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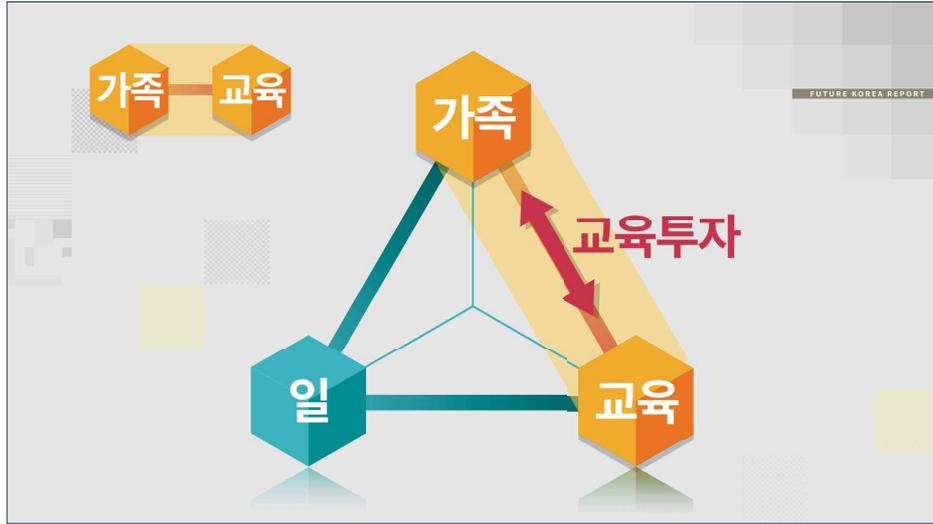
그리고 형제 없이 혼자 자란 젊은 세대는 자녀와 가족의 필요를 덜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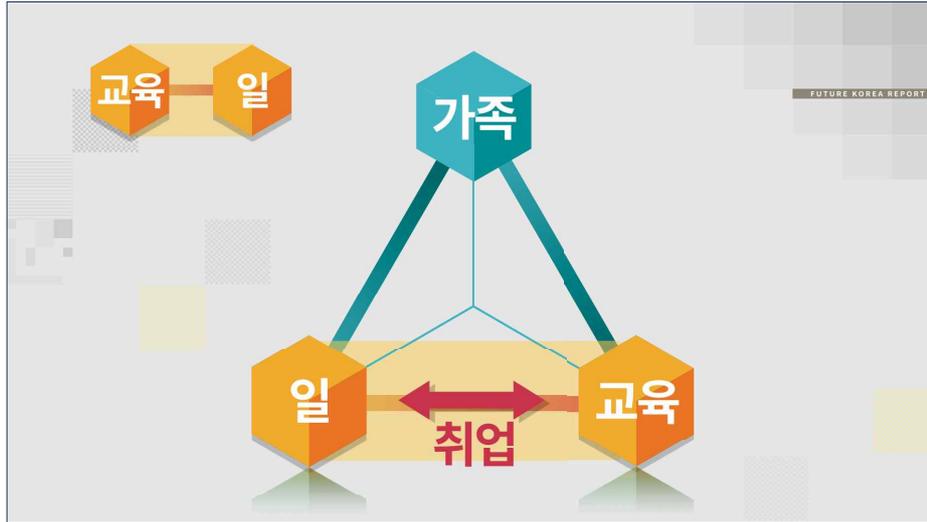
저출산의 뒷 메커니즘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 모형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가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가족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과 일의 관계입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교육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족과 교육의 관계입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나면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일을 통해 자신이 획득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육과 일의 관계입니다.



1990년대까지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는 가부장적 가족, 안정적 직장, 경쟁적 교육열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체계로 짜여졌습니다.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는 고용이 계속 늘어났고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성장과 경쟁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남성 가구주는 직장에서, 자녀는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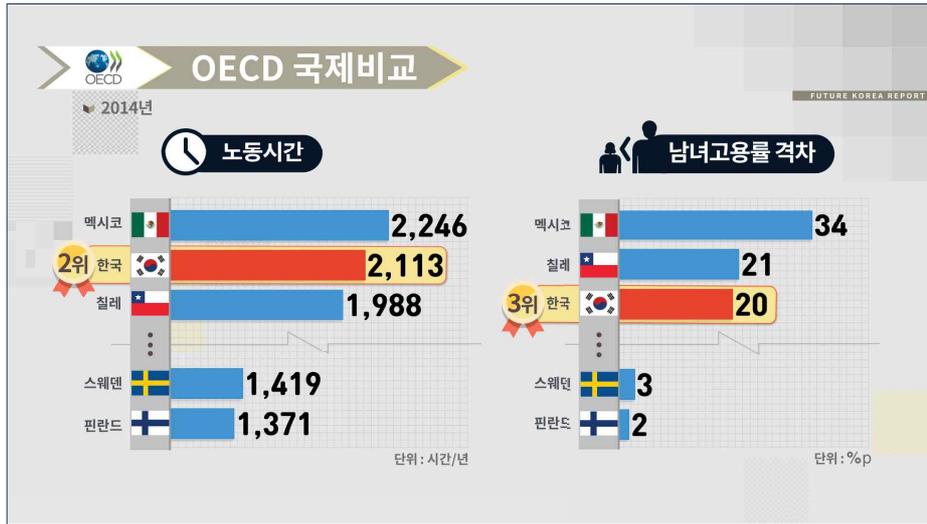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이 주어지고,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큰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보너스가 끝나고 가부장주의가 약해지면서 이 삼각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내 돌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과 가족 간의 긴장이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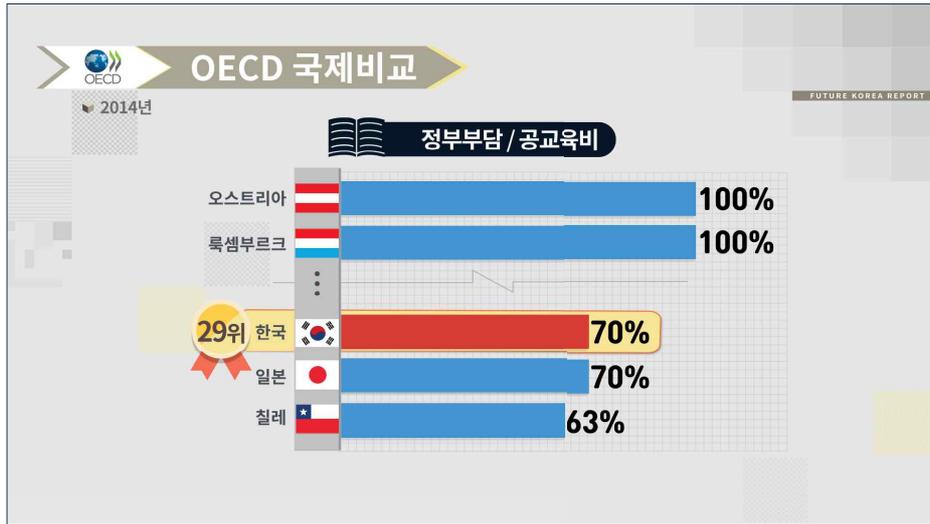
둘째로는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과잉 교육 투자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교육 간에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셋째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면서 교육과 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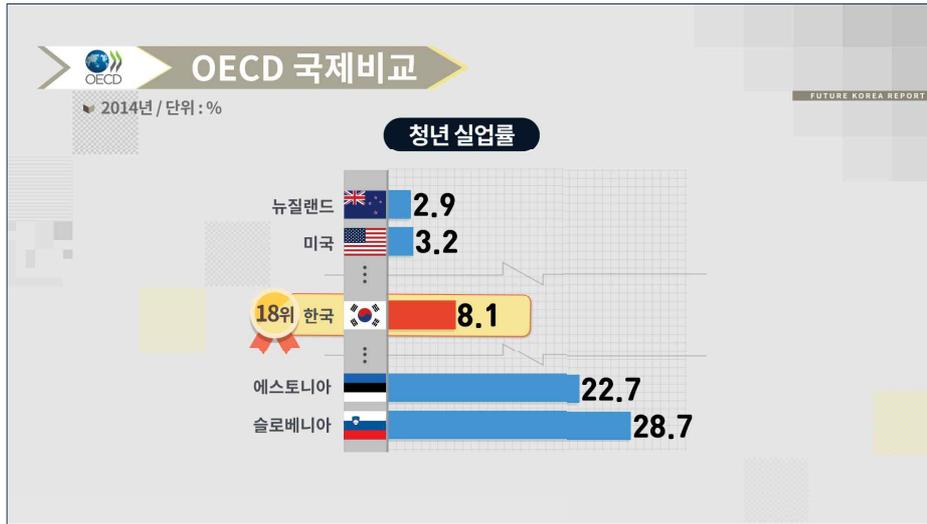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를 통계자료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길고
 남녀 간 고용률의 격차는 세 번째로 큼니다.
 일과 가족 간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과 특히 대학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가족과 교육의 관계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최근 5년간은 OECD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교육과 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31개국 중 31위로 꼴찌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노동시간, 남녀 고용률 격차, 공교육비 비율은 30위에서 29위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가 각각 18위와 24위를 기록해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일-교육의 연계균열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어진 것입니다.

OECD 국제비교

2014년

FUTURE KOREA REPORT

	종합순위	출산율 (명)
 독일	7	1.47
 아일랜드	21	1.95
 일본	28	1.42
 한국	31	1.21
대만	한국과 비슷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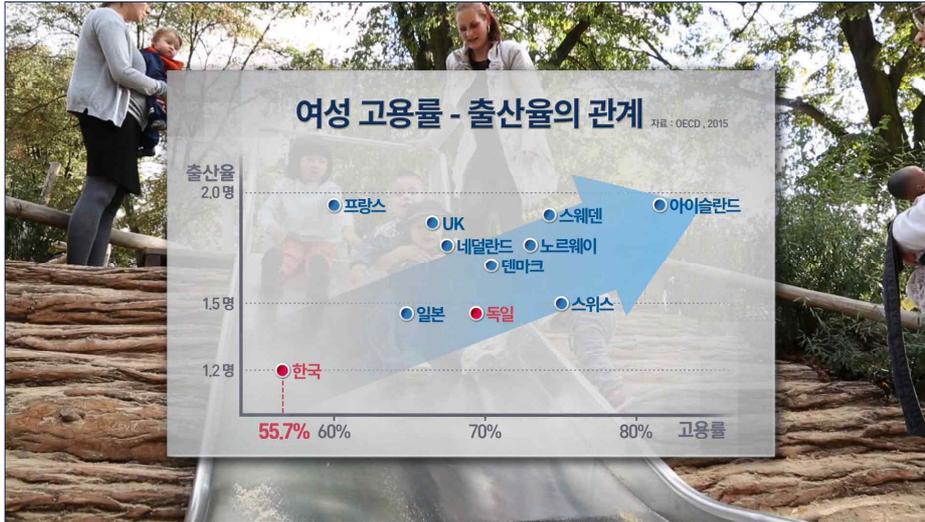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 5개국을 살펴보면
 독일이 7위, 아일랜드 21위, 일본 28위이고,
 대만은 OECD 국가가 아니지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2014년 각국 출산율과 비교하면 독일 1.47명,
 아일랜드 1.95명, 일본 1.42명, 한국 1.21명, 대만 1.16명으로
 가족-일-교육의 삼각축이 선 순환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독일은 아직 저출산 국가이지만 90년대 이후 꾸준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이라는 큰 사회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삼각축이 작동하는지 보시겠습니다.



Report

결혼 5년차 모하메드씨 가족이 휴일 나들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요리사로 바쁜 삶을 살았던 모하메드씨.
 얼마 전 하루 7시간만 일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모하메드 무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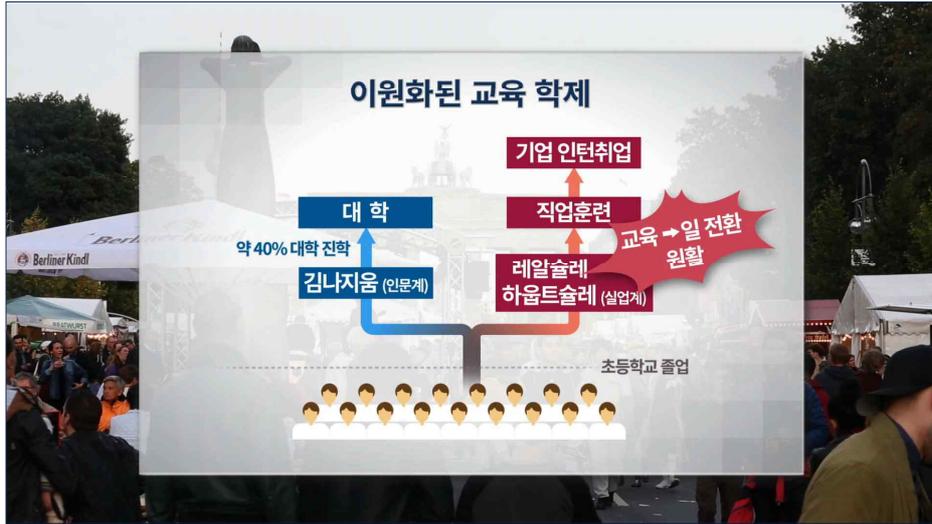
“가족 때문이죠. 제가 (요리사를) 그만 두지 않았다면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만하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고..
 이런 뻘한 전통적 가족이 됐겠죠.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덕분에 부인도 직장을 다니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동반 상승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후, 얼마 전 시간제 일자리로 복귀한 라우라씨. 출산 후 1년 동안 급여의 65%를 수당으로 받았고, 한 달에 200유로의 자녀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라우라 준야바

“여기는 남자가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많아요.
 제 남편만 해도 출산 이후 3개월 휴직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어요.”



가족 형성의 배경에는 안정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독일은 직업 교육과 인문 교육이 이원화된 학제여서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원활합니다.

16살 때 자동차 정비 직업 교육을 선택한 세밀씨.
대학 갈 성적은 충분했지만 자신의 적성을 따랐고
곧바로 관련 분야에 취직해서 30대 초반에 마이스터가 됐습니다.

세밀 야사르

“지금 돌아보면 제가 대학에 가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대학 학위를 받은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이처럼 교육에서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확연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로베르트 슈테니즈크

“베를린 전 지역에서 유치원은 무료입니다.
원래는 월 680유로(약 80만원)정도를 내야하죠.”



대학 교육도 무상이고, 대학 대신 직업 훈련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한 달에 500유로 안팎의 수당을 받으며 교육을 받습니다. 통상 교육비가 높아지면 자녀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최소한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고민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가족과 일, 교육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독일 국민들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내릴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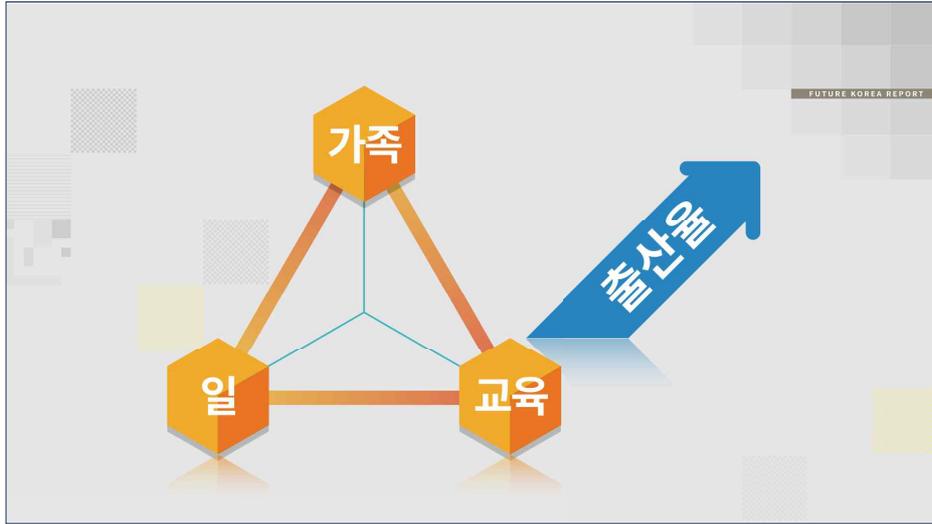
슈테파니 아인후스

“저희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고민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전부예요.”

요하네스 마이어 / 교수

“국가가 가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가정이 아이를 낳을 의지를 갖도록 말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균형이 가능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 유난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일-교육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셨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통합에서도 문제를 드러냅니다.



결혼과 출산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바통과 같습니다.
앞 세대와 뒤 세대는 양육과 부양을 매개로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수적균형을 바탕으로 형평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수적균형이 깨지면서 형평성이 훼손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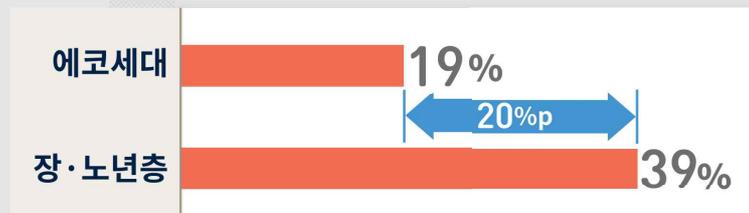
젊은 층인 에코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늘어나는데
자신들이 돌려받는 몫은 도리어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의식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2014

FUTURE KOREA REPORT

보수에 대한 지지도



에코세대와 장노년층의 생각을 비교한 조사입니다.
정치 사회적 의식의 차원에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세대는 진보적인 성향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코세대와 장노년층 사이의 보수에 대한 지지 격차는 20%p를 넘습니다.

만약 고령화 사회에서 다수의 고령층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대 간 갈등은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가디언지

FUTURE KOREA REPORT

영국 브렉시트 여론조사



최근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EU에 남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와 탈퇴를 원하는 고령 세대가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의 젊은 층에서도 79%가
장년층과 노년층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대 갈등 : 일자리

FUTURE KOREA REPORT

“취업난, 기성세대 때문”



일 자리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 때문에
취업난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에코 세대 남성 55.2%가 찬성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68.2%가 반대했습니다.
일 자리를 둘러싸고 두 세대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 일자리

FUTURE KOREA REPORT

79%



“ 부모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할것 ”



한국의 20대 청년층 79%가 부모 세대에 비해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 일자리

FUTURE KORE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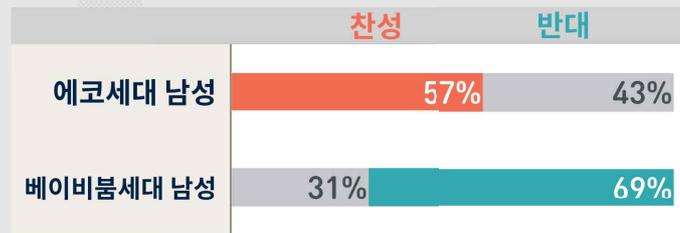
대한민국 新인구론 /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또 20대 청년층 70%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세대 갈등 : 복지

FUTURE KOREA REPORT

“노년층보다 **청년층**에 복지혜택 줘야”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대립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보다 청년층에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에코세대 남성 57%가 찬성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 6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지 문제에 관한 젊은 층과 노년층 의견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임가현(25)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주는 건 노인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연금 나오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이러는데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하나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범주(64)

“청년 세대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청년들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 복지

FUTURE KOREA REPORT



대한민국 新인구론 / 가족·일·교육의 선순환

본인들이 은퇴할 때 받게 될 연금에 대해
젊은 세대의 28%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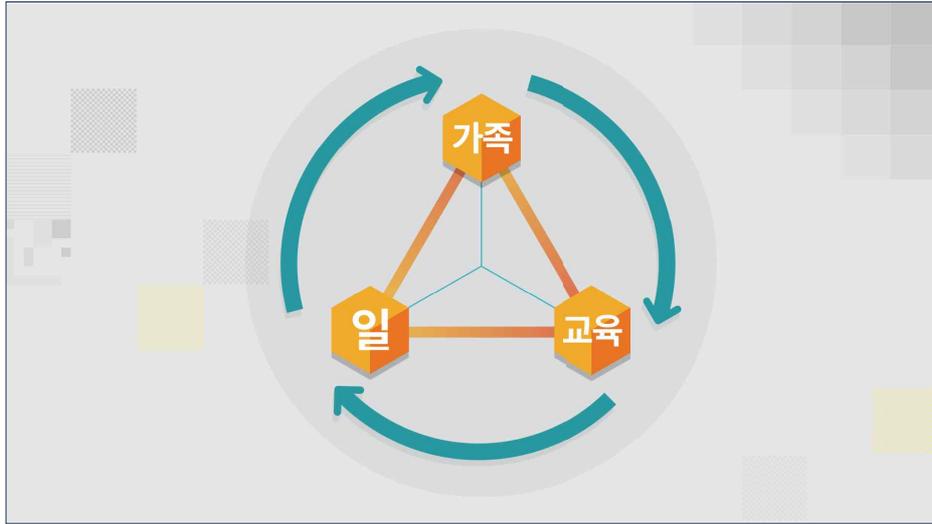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의견까지 합치면
81%가 연금혜택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비관하면
방금 보신대로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저출산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주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N포세대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이
자신의 처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악순환에 빠진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를 새로운 선순환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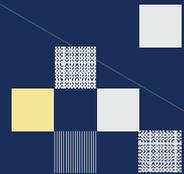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PRESENTATION
4

가족의 재발견

- 생활공공성 회복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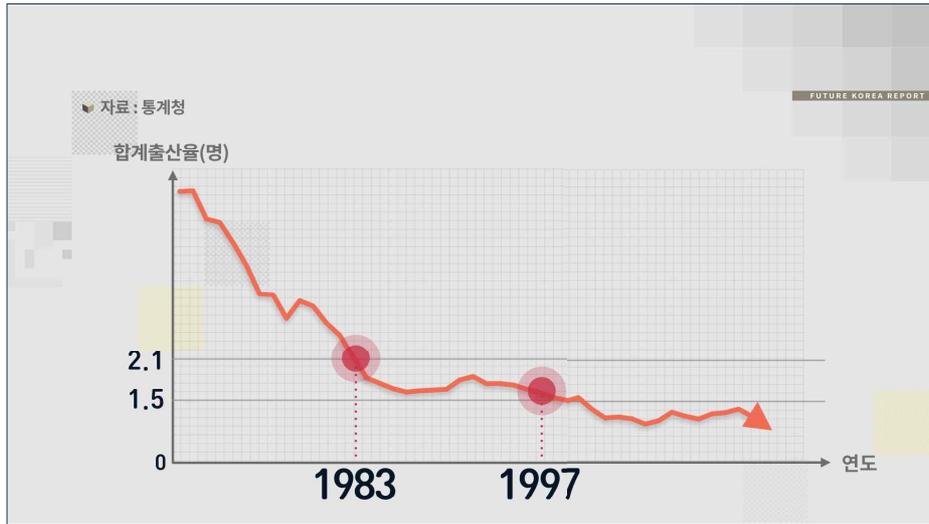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 역시 가정마다, 개인마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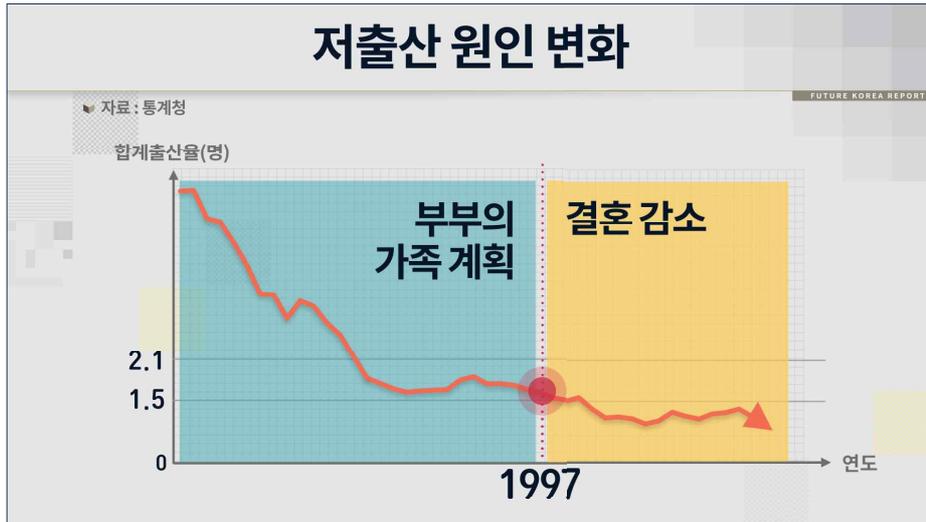
하지만 시기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출산의 원인을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원인이 어느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 지난 1983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문제로 인식된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입니다.

97년 이전과 이후를 굳이 구분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출산율 수치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원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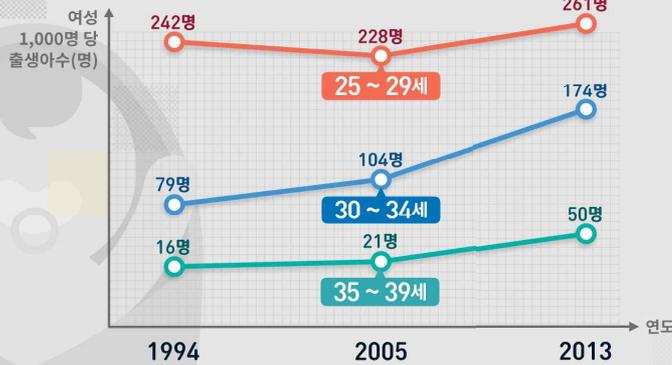
우리가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는 1980년대의 저출산 원인은 간단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 수를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그 원인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더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기혼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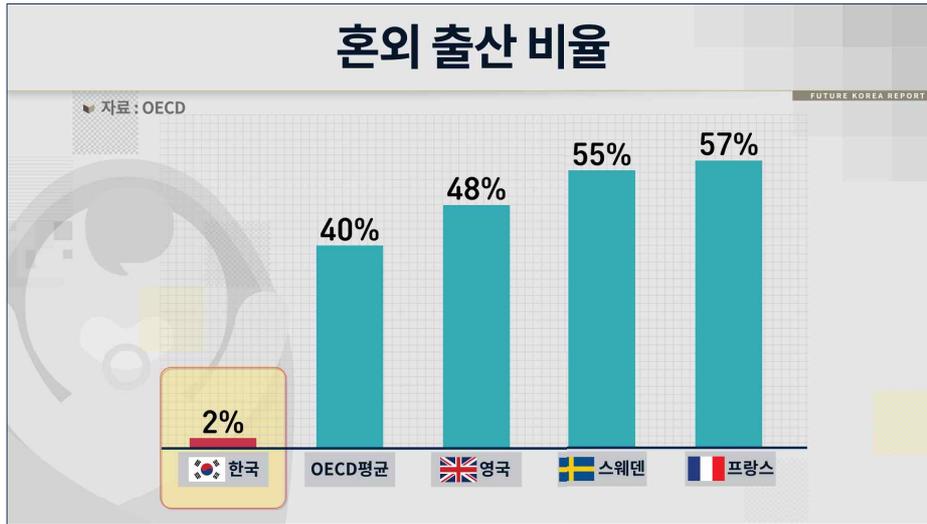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FUTURE KOREA REPORT



‘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한 부부들은
생각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의 비율이 2% 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가족이 형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문화적인 원인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사회문화적인 원인입니다.
 피터 맥도날드라는 학자가 출산율을 가지고
 여러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출산율이 1.5 이상인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분류해 살펴본 결과,
 1.5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가족 가치가 존재하고
 전통적인 성별 분업 규범도 강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원인

FUTURE KOREA REPORT

가부장적 가족주의

전통적 성별 분업 뚜렷

여성이 육아 가사 부담



이들 나라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그 책임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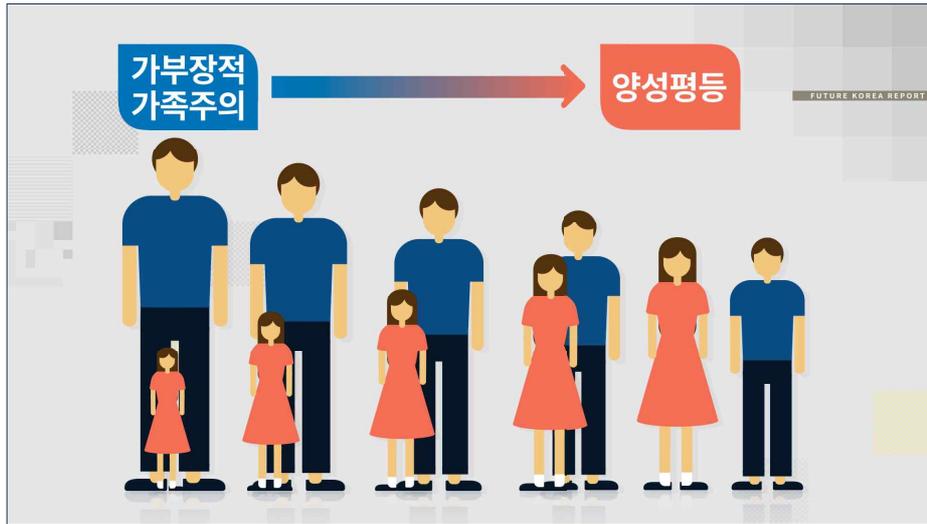
성별 분업의 규범이 매우 강합니다.

가족에 대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이 여성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자연히 출산과 양육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인

결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배어있는 관습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설령 바꿀 수 있더라도 우리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불가능할 만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일까요?

서유럽과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유럽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모두 가족 중심성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복지제도화의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했던 출산과 양육,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가 부담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탈가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국가가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같은 유럽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맞벌이 가정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 잘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공보육,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에 쓰는 복지지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통해 문화를 바꿔
'생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생활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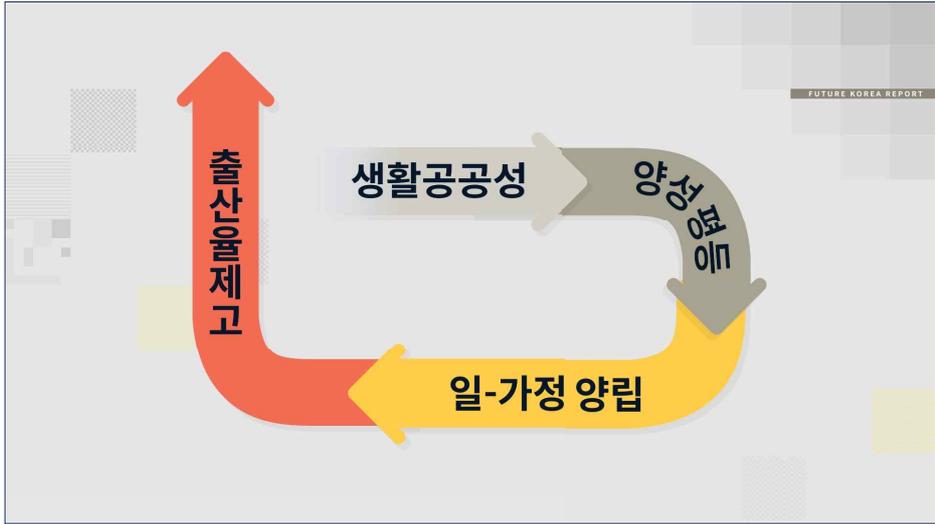
FUTURE KOREA REPORT

“일상생활에서 세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소통

보통 공공성이라고 하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의 공익성이나 민주성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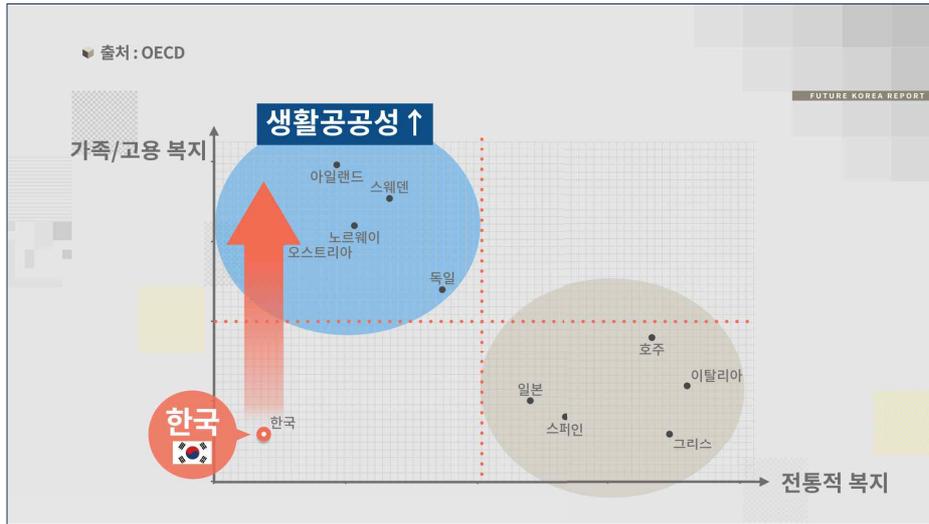
반면 생활 공공성은 가족, 학교, 직장처럼 더 작은 단위에서의 공공성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생활 공공성이 높은 사회는 남녀 간의
공평한 가사 분담이 이뤄져 양성평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 눈치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장시간 근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출산율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복지지출의 좌표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이곳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가족을 위한 지출과 고령연금지출이 모두 낮기 때문에 아직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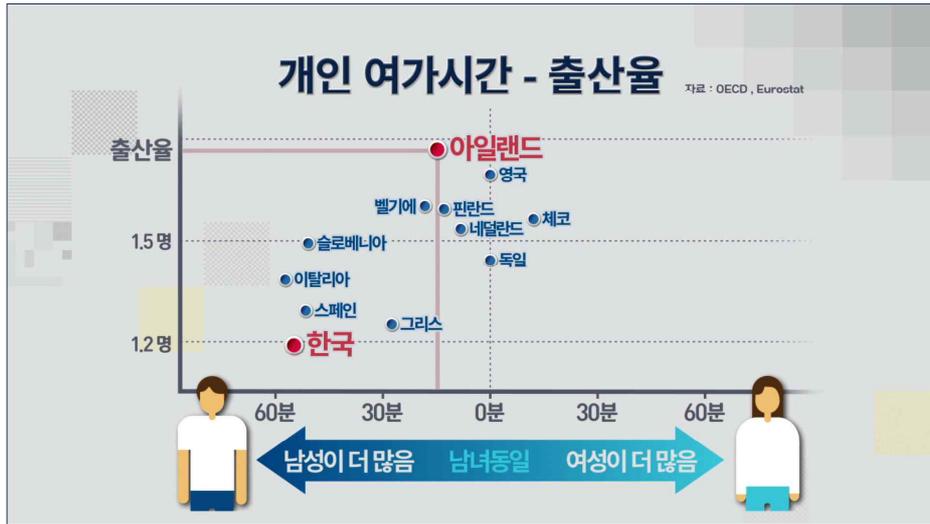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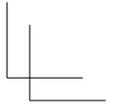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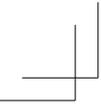
가족 형성과 유지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가족복지’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남유럽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형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남녀 간의 차별이 극심했던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Report

더블린 주택가의 한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자녀를 마중하기 위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학부모들이 모여듭니다.

마그다 /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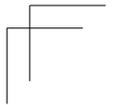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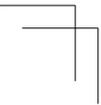
“한 집에 보통 아이가 2~3명이죠. 저도 아이가 둘인데 앞으로 하나 더 낳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반영하듯 아일랜드의 출산율은 1.95명.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위이고, 18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로 가장 젊은 나라에 속합니다.

IT 업체에 근무하는 제임스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합니다.
 두 자녀의 학교 과제를 챙겨주고, 씻기고, 잠자리까지 챙기는 게 제임스씨에게 할당된 가사 업무입니다.

제임스 머레이 / 프로그래머

“집에서는 모든 아내, 모든 여성이 상사입니다.
 물론 제가 긴 시간동안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 자신만의 여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남녀가 평등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일랜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정 내 양성평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은 고질적인 남녀 임금격차를 깨는 것부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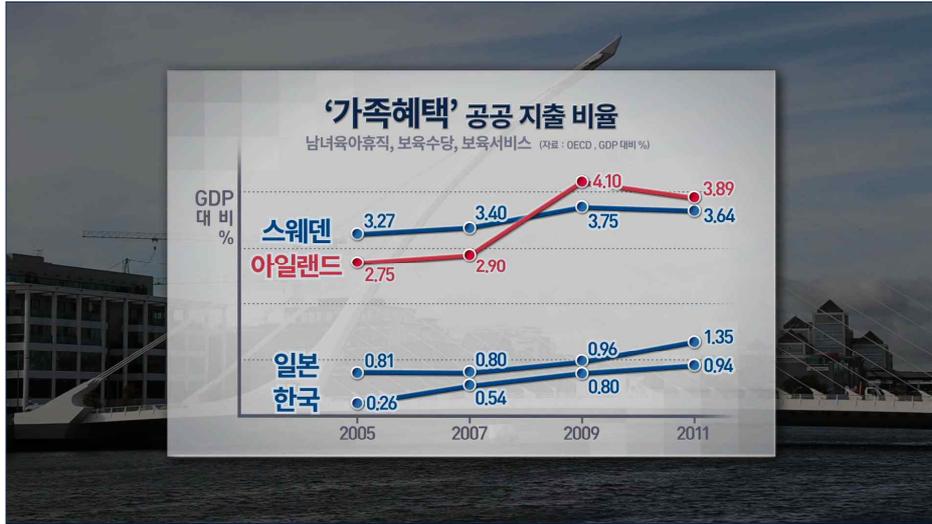
리사 로 / 시간제 근무

“여성이 더 힘들게 일하고 더 낮은 급여를 받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일 해왔던 회사들은 평등했어요.”

임금 격차가 줄면서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도 달랐습니다. 출산 수당 같은 돈 대신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병희 / 취재기자

“돈으로 출산율을 살 수 없다.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국제 연구 결과입니다. 육아나 가사 같은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쏠려 있는 사회라면 지원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출산이나 결혼을 꺼리는 여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단순한 현금성 수당 대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정당에 대해 후보자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정부 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강력한 장치까지 만들었습니다.

프랜시스 피츠제널드 / 법무장관 겸 부총리

“성 평등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성 평등에 대한 지원은 특히 국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출산율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생활공공성 정착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두 번째 원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가족을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결혼식에서부터,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 등 거의 모든 단계마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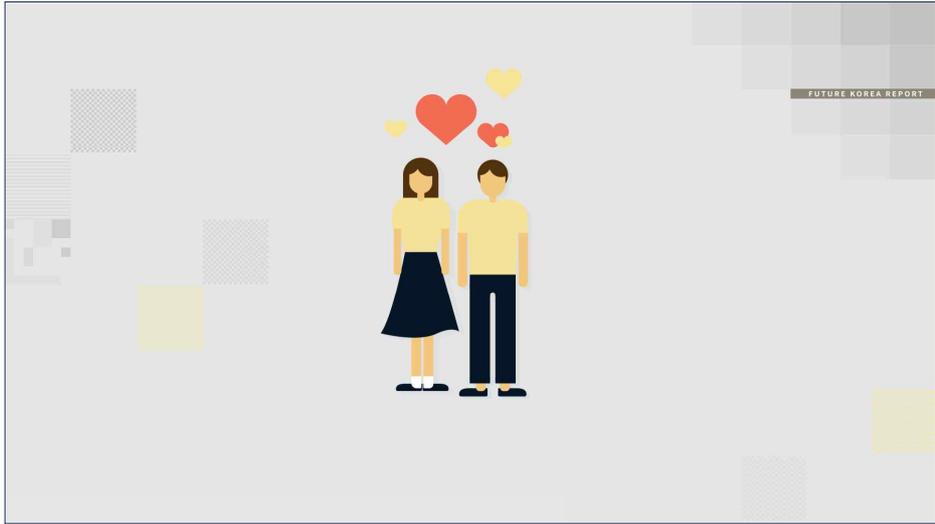
일종의 표준화된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해야 합니다.
신혼여행은 남들이 알만한 휴양지로 떠나야 합니다.
요즘은 태교 여행도 유행이라고 하죠.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유모차는 어떤 브랜드를 구입해야 하고,
영어 동요는 생후 몇 개월 안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최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모범 답안과 같은 일명 ‘국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죠.



실제로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하려면
내 집 마련을 포함해 평균 2억 4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럴 능력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남들만큼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FUTURE KOREA REPORT

최악의 청년실업

취업청년의 64% 비정규직

청년 상당수,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관문으로 들어서는데
자체를 꺼리는 그 근저를 파 내려가 보면
그 가운데에는 경제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취업을 한다고 해도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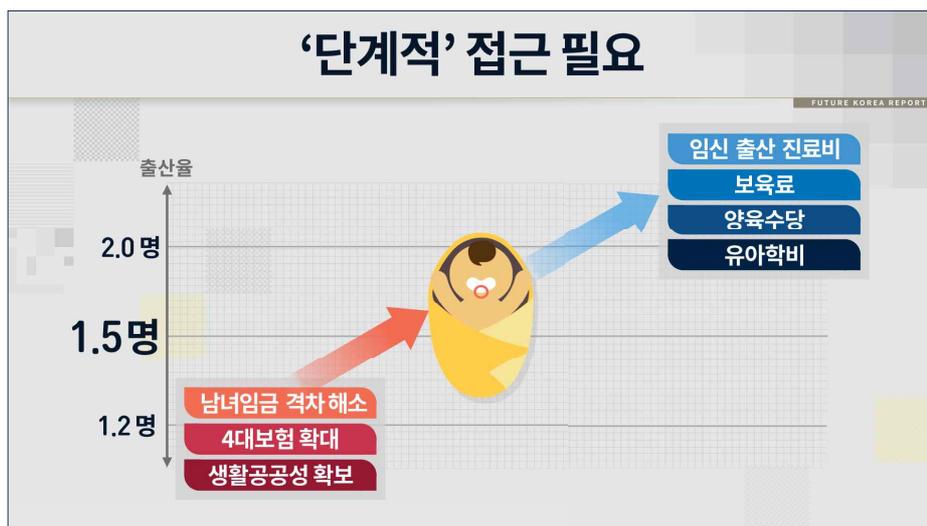
실제로 지난해 취업한 청년 64%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을 결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인데 정부의 대책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를 상정해 만들어졌습니다.

병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처방을 엉뚱하게 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컸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접근 필요



사실 이런 대책은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1.5명이 넘는,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나은 국가들이 출산율을 2.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1.2명 안팎에서 정체돼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1.2명에서 단번에 2.0명으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급하더라도 1.2명에서 1.5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단 그 수준까지 올라선 뒤, 이후에 2.0명으로 올라가는 단계적인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다시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가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구 구조로 야기된
한국 사회의 미래의 한 단면을 느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목말 태우고 다녀야 하는 모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암울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가족과 일, 교육'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세 기둥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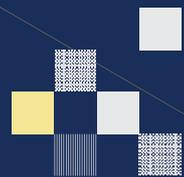
한국의 미래 복지의 큰 방향성을
'가족 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잡아야 하고,
이러한 가족정책이 우리의 일상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활 공공성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생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개인의 행복과 잠재력이 증가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착한 성장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1 국가 재정의 세대간 회계 도입

노년층과 청년층 복지지출 형평성

복지 부담과 혜택 불균형 해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 갈등 심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출산 탈출을 위한 SBS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층과 청년층 복지지출 균형을 위해서
국가 재정의 세대 회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주로 노년층을 위한 복지를 택한 남유럽 국가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반면, 청년층을 위한 사회투자적 복지를 한 북유럽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년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 회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2

교육비 완화 위한 학제 개편

- ▶ 단선형 학제로 입시 경쟁 가열
- ▶ 복선형 학제로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한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인문교육 중심의 단선형 학제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선형 학제를 도입하면 인문 교육과 직업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성평등 위한 남녀임금 격차 해소

- ▶ 성평등 지수는 세계 115위로 최하위권
- ▶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는 저출산 원인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을 위한
남녀 임금 격차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 평등 지수는 세계 11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결국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빠진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양성 평등과
저출산 탈출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SBS의 제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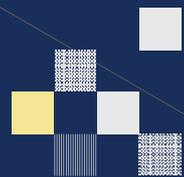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Comment

강 평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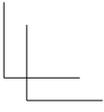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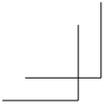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구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SBS 미래 한국리포트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오늘 논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노인 비율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비율 20%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급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400여 개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덫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경제정책, 사회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는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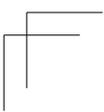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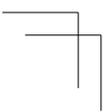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육지원 위주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저출산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지적된 것처럼 양성이 평등하지 못한 낡은 가족문화는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손 前 스웨덴 대사는 출산율 회복의 비결로 평등한 부부, 자녀의 선택에 대한 존중 등 새로운 가족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중심인 결혼, 부부가 평등한 가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때,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 언급은 되었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일·가정 양립은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강요받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



확장된 가족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종교계,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긴 안목에서 힘을 모을 때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인구 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주간 부서로서 오늘 같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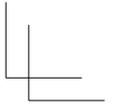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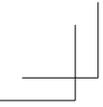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 나경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할 시간도
또, 초고령사회가 다가올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110조 썼다고
사실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CCTV 설치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하는 등 사실 모양만,
시늉만 하는 그런 대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올해는 역대 최저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스템이 저출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저는 일본을 방문해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일억총활약상을 만나고 왔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서 여성취업률도 낮다는, 그런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문했는데요, 일본은 강한 경제와
저출산 극복 그리고 노인 복지의 선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일억총활약상’이라는 장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장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일억총활약상’ 설치는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일본의 격언과 같다는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일억총활약상’을 설치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저출산 극복의 의지와 힘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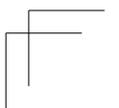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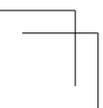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한 개국에서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특위에서 장관급 이상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빨리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 낳고, 기르고 아이 교육이 안심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회에서는 아동 수당의 도입 여부,
다자녀 우대 카드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가족정책의 수립,
평생 교육 의무화 대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의 극복은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심하고 또 이를 위한
환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아주 적절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함께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래 
한  국
리 포 트

SBS 미래부

박수언 부장
이창재 선임기자
노흥석 선임기자
이병희 기자
신승이 기자
정형택 기자
윤태욱 PD
홍성우 PD
김준용 PD
장고운

SBS 미래전략실 리소스파트

SBS A&T CG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 “대한민국 新인구론 /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발행 2016년 11월
■발행인 김진원
■발행처 SB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4192
■팩스 02-2113-4238
■웹사이트 <http://future.sbs.co.kr>

* 이 책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FUTURE KOREA REPORT

2016 · SBS





SBS